

## 천일염 “불법 유통” 이력제 생산자 둔갑 무자료 탈세 “수상한 회계” 정기감사 거부

경기도 광명시새마을회가 신안산 천일염 브랜드를 도용해 영광산(포대 명사립) 소금을 신안산 소금으로 둔갑된 소금을 매입하여 판매한 불법 행위가 드러났다. 이들은 ‘포대같이’라 불리는 방식으로 생산자 표시가 없는 소금을 신안 천일염 포대에 담아 유통했으며, 심지어 임의로 생산자 이력서를 붙여 소비자를 기만했다. 이러한 행위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중대한 범죄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다.

광명시새마을회는 이 과정에서 등록되지 않은 납품업체로부터 소금을 매입해 판매했고, 사업자 등록 및 세금 신고도 하지 않아 조세법 처벌법 위반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 불법 행위는 정직한 신안 천일염 생산자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고, 소비자에게는 출처가 불분명한 식품을 공급하는 결과를 낳아 말벌이 일고 있다.

광명시새마을부녀회는 소금 등 구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새마을중앙회의 ‘그린일 구관 사업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등록되지 않은 납품업체(경기도 광명시 천변길 4\*\*)로부터 소금을 매입·판매하거나 생산자 표시가 없는 소금 포대를 임의로 제작해 이른바 ‘포대 같이’ 방식의 불법 유통을 한 정황들도 함께 드러났다.

이는, 포대같이 등 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허가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급지된 천일염 포장에 이뤄지고, 천일염 이력제 라벨까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발부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이 같은 행위는 신안 천일염 브랜드의 신뢰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정직하게 생산에 종사하는 천일염 생산자와 이를 믿고 구매하는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근면·자조·협동’을 기치로 하는 새마을운동의 본래 취지와는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와 관련,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판매거나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원산지란 농산물이 생산·채취된 국가나 지역을 말하며, 원산지 표시의 목적은 농산물이나 그 가공 품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유명 상표를 도용하여 포장지를 제작하고 판매하는 행위는 상표법 위반에 해당하며, 형사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실제로 수입품 소금을 유명 국내산 상표로 도용해 판매한 사례에서 제조·판매업자가 해당경찰에 검거된 바 있다.

광명시새마을회 회원 A 씨 등 회원들의 말에 따르면 “비영리 봉사 단체로 경기도 광명시에서 지방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인, 광명시새마을부녀회(박○○회장)가 ○○건설업체(대표 이 모 씨)에서 납품받아, 사무국장과 협의회와 부녀회가 앞장서 약1000여포(2024년)를 판매했고, 소금을 농막에 보관 납품한 건설업자는 영광산 포대에 신안산 소금 생산자 이력제까지 임의로 부착하여 상표를 도용하고 둔갑시켜 납품하였는가 하면, 매일·매출(차량 2대 물량 약2600포대)계산서도 발행하지

않아 탈세혐의도 있다고 한다. 또한, 납품업체인 ○○건설업자는(광명경찰서 광명지구대생활안전협의회 회장) 생산자와 판매가격 등을 일관성 없는 답변을 하고 있으며, 광명시새마을 회계담당 과장은 부녀회 정기감사에서 감사가 판매 사업 등 회계자료를 요구했으나 미제출로 회계 투명성 결여와 감사 거부라는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내부 회원들 사이에서 의혹이 난무하고 ‘촌극’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라면, 이는 단순히 운영상의 미숙을 넘어 법적·행정적 책임 소재를 따져야 할 시점으로 보인다.

정기 감사를 거부하거나 회계 자료 제출을 미루는 행위는 단체 내부 규정 위반은 물론, 지자체의 지도·감독권을 무력화하는 행위로 간주되며, 상표법 위반과 농산물 원산지 표시법 위반에 해당하여 강력한 단속과 처벌 대상이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형사처벌, 행정처분과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포함될 수 있으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추가 보상과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어,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의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보여,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기동취재부

### 지면안내

- ▶ 국힘, '한동훈 제명'에 내홍 격화... 韓 “반드시 돌아올 것” 3면
- ▶ '두쫌꾼 효과' 광주·전남 현월 2.6배... 카페들도 기부 행렬 9면

## “전남광주특별시, K-문화관광 허브 도약 전환점”

문화예술·관광·종교 관계자 등 100여명 참석... 현장 해법 모색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지속 추진·관광시너지 창출 등 제안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9일 광주문화재단에서 문화·관광 기관 및 단체 관계자, 종교계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전남 통합 문화예술·관광분야 시민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김영문 문화경제부시장, 김광호 광주연구원 매력도시연구원실장, 광주예총, 광주민예총, 문화콘텐츠 기업, 종교단체, 광주관광공사, 광주관광협회 등 지역 문화·관광·종교계를 대표하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광주시는 광주전남 통합 추진 경과와 불이의 배제 원칙, 통합에 따른 정부 인센티브, 특별법 주요 내용 등을 설명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문화·관광 분야 특별법안을 중심으로, 광주와 전남 간 통합으로 기대되는 정책 동반상승(시너지) 효과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문화예술단체 관계자들은 예술인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 확대를 요청하며, 통합 이후 확보된 재원을 활용해 공연장, 전시장 등 활발한 문화예술 활동을 뒷받침할 대규모 문화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시·도 간 상이한 문화예산의 지원책으로 인한 혼란을 우려하며, 통합 이후 정책 수립 과정에서 현장과 충분한 소통 및 단계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문화산업분야에서는 지역에 기반을 둔 기업들이 통합 후 지원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균형 있는 정책 수립과 집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관광단체 관계자들은 경기 침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정통합을 통해 광주의 마이스(MICE) 산업과 도심 자원이, 전남의 생태·해양 관광자원과 결합된다면 체류형·복합 관광상품 개발이 가능할 것이라며,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청했다.

김영문 문화경제부시장은 “문화·관광 분야 현장을 통한 정책제언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며 “전남광주특별시 특별법안에는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특례가 담겼다. 통합을 통해 문화인프라는 더욱 풍부해지고, 문화예술인의 활동 무대는 넓어지며, 문화산업 성장의 기회도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남광주특별시는 케이(K)-문화관광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광주시는 ▲1월30일 건설·안전·교통·노동 분야 ▲2월2일 주민자치·마을공동체 분야 ▲2월2일 사회복지·노인·장애인·보건의료분야 등 직능별 공청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 시민 체감도가 높은 통합 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전광훈 기자

## 1.2조 인공태양 품은 나주, 서울서 투자유치로드쇼

### 에너지밸리·인공태양 연구시설 집중 홍보

1조2000억원 규모의 인공태양(핵융합) 연구시설을 유치한 전남 나주시가 에너지 기업 유치와 투자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서울에 나갔다.

나주시는 2월4일~6일 서울 코엑스에서 수도권 기업 투자유치 로드쇼를 연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코리아 스마트그리드 엑스포 2026’과 연계해 수도권 에너지기업의 나주 유치를 목표로 열린다.

4일 첫날 개막식에선 나주 에너지밸리 투자유치 협약 체결과 함께 강상구 나주시 부시장은 투자 환경 설명 프레젠테이션(PT)을 직접 진행한다.

또 ‘대한민국 에너지수도 나주’ 2단계 비전을 소개하는 홍보 퍼포먼스 순서에선 인공태양 연구시설, 전력산업 핵심 인프라, 에너지 기본소득, 전력기저제 산업 거점 등 나주의 중장기 성장 전략을 집중적으로 알린다.

같은 날 오후에는 한국전력공사와 공동으로 투자설명회를 열고, 유망 에너지기업 9개사와 전문 투자기관이 참여하는 1대1 투자유치 데모데이(IR 피칭)를 통해 자금 조달과 사업 확장을 지원한다.

5~6일에는 에너지 분야 전문가 특강과 명사 강연,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켄텍)와 동산대가 참여하는



대학 홍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행사 기간 코엑스 A홀에선 ‘나주 에너지밸리 홍보관’에서 1대1 기업 투자 상담이 상시 이뤄지며 ‘2026년 나주 방문의 해’ 홍보도 펼쳐진다. 나주/이명열 기자

Goheung Spaceship Terminal

# 제16회 고흥 우주항공축제

## 2026.5.2.④-5.5.⑤

고흥군 봉래면 나로우주센터 일원

주최/주관 고흥군 고흥군축제위원회

지구문명에서 우주문명으로